

# 임성재 PGA투어 '최다 버디' 신기록 썼다

올시즌 498개 3년 연속 '버디왕'  
PGA 플레이오프 캔틀레이 우승

임성재(23)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역사를 새로 썼다.

임성재는 6일(한국시간) 끝난 PGA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이자 2020-2021시즌 마지막 대회인 투어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5개를 뽑아냈다.

임성재는 이로써 이번 시즌에 498개의 버디를 잡아내며 PGA투어 시즌 최다 버디 신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은 2000년 스티브 플래시(미국)의 493개. 21년 묵은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3라운드까지 493개의 버디를 잡아내며 플레이오프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임성재는 이날 2번 홀(파3)에서 6m 버디 퍼트를 잡아넣어 일찌감치 새 기록을 수립했다.

2019년과 지난해에도 시즌 최다 버디 1위에 올랐던 임성재는 3년 연속 '버디왕'을 차지했다.

임성재는 이번 시즌에 무려 34차례 대회에 출전했고 128라운드를 돌았다. 2000년에 123라운드를 치렀던 플래시보다 5라운드가 많다.

임성재는 "(시즌 최다 버디 신기록은) 어제까지 몰랐는데 어제 TV 중계에 나오는 걸 보고 알았다. 그래서 오늘 한 번 그 기록을 깨보려고 생각했는데, 2번 홀에 버디를 하면서 기록이 깨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도 이 버디 기록은 내가 계속 유지하면 좋겠다"고 기뻐했다.

해마다 최다 경기 출전 1위에 오르는 강철체력으로 유명한 임성재는 "어릴 때부터 PGA 투어에서 뛰는 게 꿈이었다. 많이 쉬어 가면서 출전한다고 생각했는데 워낙 대회가 많아 그런지 이렇게 많은 대회를 참가하게 됐다. 이렇게 대회에 뛸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성재는 곧 시작하는 가을 시리즈에서는 "5차례 가장 출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9월 16일부터 시작해 12월까지 이어지는 2021-2022시즌 가을 시리즈 대회는 이벤트 대회를 빼고 9개다.

임성재의 2021-2022시즌 첫 대회는 9월 30일 개막하는 샌더스 팜스 챔피언십이다.

이번 시즌에 우승은 하지 못했어도 마스터스 준우승을 포함해 5번이나 10위 이내에 진입했고, 415만 달러의 공식 상금을 벌어들이며 페덱 스킵 랭킹 12위에 오른 임성재는 "기회도 많았는데, 시즌 초반에 우승 기회를 못 살려서 좀 아쉽다"면서 "그래도 투어 챔피언십까지 출전해 올 시즌을 잘 보냈다는 생각이 든다"고 자평했다.

우승은 최종 라운드에서 1언더파 69타를 쳐 최종 합계 21언더파 269타가 된 패트릭 캔틀레이(미국)가 차지했다.

세계랭킹 1위 스페인(스페인)의 추격을 1타 차로 따돌린 캔틀레이는 플레이오프 우승 보너스 1,500만 달러를 받았다.

시즌 4승째이자 PGA투어 통산 6승째. 플레이오프 우승은 이번이 처음이다.

2언더파 68타를 친 맑은 이 대회를 시작할 때 캔틀레이와 격차 3타를 따라잡지는 못했지만, 500만 달러의 보너스를 챙겼다.

미국 교포 케빈 나(한국이름 나상욱)는 3언더파 67타를 때려 3위(16언더파 266타)를 차지했다. 저스틴 토머스(미국)가 4위(15언더파 269타)에 올랐고, 도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잔디 쇼펠레(미국)와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이 공동 5위(14언더파 269타)의 성과를 냈다.

/연합뉴스



임성재가 6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레이크 골프클럽에서 열린 PGA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 4라운드 2번홀에서 퍼트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벤투호 더욱 '과감한' 손흥민 필요해

오늘 레바논과 최종예선 2차전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7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레바논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2차전 홈경기를 치른다.

애초 이번 경기는 레바논 원정으로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대한축구협회가 레바논 축구협회와 협의해 내년 1월 27일 예정된 7차전 홈경기와 일정을 바꿨다.

내년 1월 국내 홈 경기가 추운 날씨로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예선 1, 2차전을 국내에서 치른다는 이점도 얻을 수 있어 내린 결정이었다.

더불어 내년 1월 7-8차전은 모두 원정으로 치르게 돼 장거리 이동의 부담도 덜어냈다.

벤투호는 지난 2일 치러진 이라크와 최종예선 1차전 경기에서는 68%의 볼 점유율에 15개의 슈팅(유효슈팅 5개 포함)을 시도했지만,

만, 무득점에 그치며 0-0으로 비기는 결과를 떠안으며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을 향한 첫걸음을 무겁게 내디뎠다.

손흥민은 이라크전에서 왼쪽 날개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는 동안 전반 23분 단 한 차례 슈팅에 그쳤다.

볼을 이어받으면 동료에게 슈팅 기회를 내주는 도우미 역할과 더불어 코너킥 세트피스 키퍼 역할에 더욱 충실했던 결과다.

손흥민은 벤투호 출범 이후 22경기 A매치에 나서 4골을 터뜨렸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무대에서 인정받는 '월드클래스' 공격수의 모습과는 사뭇 낮은 기록이다.

다만 A매치와 프로리그 경기를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손흥민을 향한 상대 팀들의 견제 수준이 달라서다.

이라크전에서는 상대 선수 한 명이 아예 손흥민을 전담 마크하며 움직임을 방해했다. 하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손흥민은 이라크

전에서도 슈팅을 자제하고 더 좋은 자리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하는 모습이 많았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이 분석한 이라크전 히트맵(주로 뭉 구역을 표시하는 지도)을 보면 손흥민은 중원 왼쪽에서만 주로 활약했다. 왕어의 역할에는 충실했지만 상대 위험지역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은 약했다.

후반전에는 움직임이 더욱 줄었다. EPL 경기를 치르고 이동해 이들 만에 풀타임을 소화하느라 체력이 따라가지 못했다.

결국 손흥민이 도우미의 짐을 덜어내고 해결사 본능을 더 살리지 않으면 7일 레바논전도 답답한 경기가 예상된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98위로 A조에서 가장 순위가 낮은 레바논은 '침대 축구'의 개연성이 더 높아서다.

이번 레바논과 2차전도 선제골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해결사' 손흥민의 활약에 팬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아르헨티나 선수 방역 조치 위반  
월드컵 예선서 키오프 직후 중단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2022 카타르 월드컵 남미예선 6차전이 선발 출전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소속의 아르헨티나 선수 3명의 방역 조치 위반 때문에 키오프 직후 중단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6일(한국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의 아레나 코린치앙스에서 열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카타르 월드컵 남미예선 6차전 경기는 키오프 5분 만에 브라질 식약위생감시국(ANVISA) 직원들이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규정 위반 문제를 놓고 그라운드에 입장하면서 중단됐다.

그라운드 들어온 식약위생감시국 직원들은 아르헨티나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이어 아르헨티나 주장인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와 선수들은 라커룸으로 들어갔다.

결국 남미축구연맹(CONMEBOL)은 키오프 50분 만에 경기 취소를 선언한 뒤 관련 보고서를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출하기로 했다.

브라질 식약위생감시국 직원들이 경기 시작과 함께 그라운드에 들어선 것은 브라질전에 선발 출전한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에스턴 빌라), 크리스티아노 로메로, 조바니 로셀소(이상 토트넘) 때문이다.

이미 전날 브라질 식약위생감시국은 상파울루에 도착한 아르헨티나 대표팀 선수 가운데 EPL 무대에서 뛰는 로셀소, 마르티네스, 로메로, 에밀리아노 부엔디아(에스턴 빌라) 등 4명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여부를 들어 격리 조치를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르헨티나가 선발 명단에 EPL 소속 3명의 선수를 선발로 내세우자 브라질 식약위생감시국 직원들이 이들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면서 경기는 중단되고 말았다.

/연합뉴스

KT 60승 눈앞...중위권 가을야구 경쟁 가열

10개 구단 이번주 100경기 돌파

비 때문에 경기가 취소되지 않는다면,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이번 주 팀당 시즌 경기 수 100경기를 돌파한다.

비를 피해 경기를 많이 치른 삼성 라이온즈·키움 히어로즈·한화 이글스(이상 102경기)와 SSG 랜더스(101경기)는 이미 100경기를 넘었다.

12일에는 전 구장에서 더블헤더가 열리는 등 전 구단이 이번 주에 7경기를 벌이기에 가장 경기 수가 적은 KIA 타이거즈(94경기), LG 트윈스·NC 다이노스(이상 95경기)도 시즌 100번째 경기를 차례로 치를 것으로 보인다.

팀당 144경기를 치르는 KBO리그에서 100

경기를 넘겠다는 건 남은 정규리그 경기가 40경기대로 줄었으며 그만큼 포스트시즌이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최근 3경기 내리 11득점을 뽑아내며 무서운 공격력으로 3연승을 질주한 선두 KT는 1승을 보태면 60승에 선착한다.

흥미 요소는 포스트시즌 출전권 확보를 위한 중위권 경쟁이다.

4위 키움부터 8위 롯데 자이언츠까지 승차 5.5경기 안에서 5팀이 겨루는 포스트시즌 티켓 다툼이 선전한 바람에 불면서 뜨겁게 가열될 조짐이다.

지난달 10일 후반기 레이스 재개와 함께 11승 2무 7패를 거둬 하반기 승률 2위를 질주하며 중위권 도약에 시동을 건 롯데의 맹추격이 불 만하다.

/연합뉴스

박소현 국제테니스연맹 스페인 대회 단식 우승

박소현(40위·성남시청)이 국제테니스연맹(ITF) 마르베야 컵(총상금 2만 5,000달러) 여자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CJ제일제당 후원을 받는 박소현은 지난 5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르베야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톱 시드의 마리나 멜니코바(196위·러시아)를 2-0(6-1 7-6(8-6))으로 물리쳤다.

2019년과 올해 3월 총상금 1만5,000달러 규모 대회 단식에서 우승한 박소현은 생애 처음으로 총상금 2만5,000달러 대회 단식을 제패했다. 이번 우승으로 박소현은 세계랭킹 316위 안팎으로 순위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박소현



브라질의 네이마르(왼쪽)와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6일 오전(한국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의 아레나 코린치앙스에서 열린 2022카타르월드컵 남미예선 6차전에 앞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대화하고 있다.

/AFP-연합뉴스